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에 대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Study on Perception of Group Hom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orker on Sexually Problematic Behavior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임해영*, 홍영준**, 전주람***

에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학습심리상담전공***

Hae-Young Lim(hae0629@hanmail.net)*, Young-Joon Hong(yhong@smu.ac.kr)**,
Joo-Ram Jun(ramidream01@uos.ac.kr)***

요약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에 관한 이들의 인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 필요한 유용한 논의점을 제시하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과 성인식 2가지 본질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고, 성문제 행동은 '성적 욕구를 과도하게 표출하는 존재',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부적절한 성행동' 2개의 하위주제로, 성인식에서는 발달장애인 성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의 부재', '성적 매력을 갖기에는 불리한 조건', '좌절된 성', '딜레마의 문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성', '연애와 성관계는 OK, 임신과 결혼은 NO' 라는 6개의 하위 주제로 총 8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성규범을 강화하고 재생산해내는 주요 주체로서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성규범과 관련하여 가치관 혼란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고정관념적 시각에 관해 되짚어보고, 그들의 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하여 담론형성의 장과 발달장애들의 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 |

Abstract

In order to find out perception of group hom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orker on sexual behavior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 holistic way,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ix research participants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ese experiences appeared as two thematic themes: 'sexual trouble behavior' and 'perception of sexuality'. Two sub-themes of 'Excessive expression of sexual desire', 'Improper sexual behavior that can lead to sexual offenses' were derived from the essence theme of 'sexually problematic behavior' and 'perception of sexuality' were derived from the essence theme of 'lack of suitable solution', 'conditions that are not enough to have sex appeal', 'frustrated sexuality', 'some dilemma problem', 'sexuality that is not different from non-disabled', and 'love and sex are ok, pregnancy and marriage are no'. Based on this, group home caregivers contribute to their role as the main agents who reinforce and reproduce the sexual norm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ile at the same time they experience confusion in their values about sexual norm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s the major intervention plan for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the competences of group home caregivers in order to form a holistic perspective of group home caregivers in sexuality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rovide rational solutions.

■ keyword : | Developmental Disabilities | Sexually Problematic Behavior | Group Home Worker | Phenomenological Study of Giorgi |

I. 서론

인간이라면 대부분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차원에서 느끼는 성적 만족이야말로, 장애·비장애인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인간이 지향하는 삶의 즐거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존재, 무성적 존재로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취급되어지거나, 이와는 정반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존재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여겨진다[1][2]. 특히,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 권리의 주장, 자기 보호가 어렵고, 학대, 무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 권리 침해 등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위치 지워져 왔다[3]. 물론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요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활발해지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자립을 요구하던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기주장에 의한 주체적인 삶을 기대하는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성(性)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지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그들의 성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들의 성적 욕구는 표현되기보다는 억압되고, 보호받아야 할 성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또한 이들은 성인기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특성상 자신들을 보살피는 부모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도움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6]. 그런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의사주를 함께 하면서 이들의 생활전반에 관여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환경 특성상 발달장애인의 부적절한 성행동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과 의사주 등 대부분의 일상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들의 생활전반에 관여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특성상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을 가까이 관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시설에서의 부모역할을 대신하는 기관 종사자들이 바라보는 성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에 관한 국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7], 발달장애인 성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요구[7-9]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발달장애인 성에 관한 부모와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식 비교[10]나, 이들의 성행동에 관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대처 경험[11]등을 탐색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왔다. 또한 국외 연구의 경우도,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비장애인[12], 부모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10-12]의 태도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성적 문제행동에 대해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을 터부시 하는 유교 사상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견고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10], 이로 인한 보수적 성규범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 시설이 이들에게 가정이며, 시설 종사자가 가족구성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8]. 따라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부적절한 성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종사자 자신의 반성적 성찰과 인식 개선 및 발달장애인의 성을 지원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고 성적 문제행동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성(sexuality)을 바라보는 시설 종사자의 생각과 태도를 탐색하는 것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과도한 성문제행동에 대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식을 분석해봄으로써 관련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 필요한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 성문제 행동

Giulio(2003)는 발달장애인들이 생식력, 성적 호기심, 성적 반응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처럼 이들은 타인과 사적인 관계로 발전해가고 싶은 욕구, 타인에 대한 애정,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12][13].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나 호기심, 성적 반응 등은 비장애인의 성적욕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성적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피해건수 1,789건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현황이 전체 장애인 피해자 유형 중 7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발달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에게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부적절한 성행동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성을 함부로 만지거나 껴안는 행동, 타인의 옷을 들추거나 벗기기, 성적 욕설 등과 같은 문제행동[9], 성적 강제 추행,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행동[10]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자 2,884명 중 지적 장애인은 약 2.1(81명)%로 나타났다[14]. 더욱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학대 가해자의 50% 정도가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며[15], 이들 대부분은 남성이고,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은 그들이 비록 악한 의도가 없을지라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은 성폭력 피해와 가해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연구 접근들은 주로 이들의 성폭력 피해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16-18]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부적절한 성행동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무분별하거나 혹은 성적 가해로 연결될 수 있는 성문제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종사자 인식

발달장애인들의 성행동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탐색한 일부의 국외 연구들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직장 동료 혹은 편안한 친구로 기꺼이 받아드리는 데 거부감이 없지만, 그들을 데이트나 성적 상대, 결혼 상대로 받아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덜 수용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19].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시선은 이들을 돌보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연구한 Lumely and Scotti(2001)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부적절한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성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20]. 이것은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김영숙(2015)은 발달장애인은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의 구별 없이 성적으로 행동하거나, 지나친 자위행위, 음란행위, 성적인 욕설하기, 가슴 만지기 등의 문제적 성행동을 보고하였고, 부모에 비해 기관종사자들이 이러한 성적문제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받아드린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임혜영·김학주(2015)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인지능력의 부족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성행동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젠더에 기반한 고정관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여성 장애인은 성적으로 순진무구하여 취약하다는 고정관념, 남성장애인은 높은 성적 동기와 충동, 성적 관계에 집착한다는 고정관념[19]을 들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이들의 고정관념적 시각은 발달장애인들이 거의 성적 경험[20]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적 사고는 지적 수준과 생활 연령을 고려한 성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와 [21], 이와 관련된 발달장애인들의 안전한 성적 실천들, 피임, 감염될 수 있는 성적 질병과 관련한 지식의 부재로 연결된다고 하겠다[22].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장애

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자들의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할 수 있다[23].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시설종사자들의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을 향한 시선은 그들의 성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이들의 성문제 행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해 모색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의 장점은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현상의 본질을 도출하는데 있다[24]. 여기서 현상의 본질이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개별적 경험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의미의 본질 구조들을 파악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 특히 기술 현상학으로 대표되는 Giorgi(1997)의 방법은 의미의 본질 구조를 분석하는데 탁월한 연구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25]. 이와 더불어 Giorgi(1997)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자 자신의 선이해, 선입견 등에 대해 괄호치기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사태 자체라는 연구 현상으로 들어가 본질 직관을 통해, 그 속에서 드러난 본질적 의미들을 주제화하여 기술하도록 한다[2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체험하는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 이들이 부여하는 인식의 본질적 의미 구조는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¹⁾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의도적 표집 전략 방법에 따라 관련 분야 기관 전문가

에게 연구 참여자 추천을 의뢰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 장애인복지기관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 3인에게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종사자 5인(참여자 1, 2, 3, 4, 6)을 소개받았고, 연구 참여자가 참여자를 소개하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 5가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성인지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종사자들로 하였다.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성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러한 경험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연구 참여자 자신의 객관적 사고가 반영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연령)	근무 시설	경력
1	여(51)	여성장애인공동생활가정	6년
2	남(37)	남성장애인공동생활가정	5년
3	여(49)	여성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년
4	여(55)	여성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년
5	여(28)	여성장애인공동생활가정	5년
6	남(45)	남성장애인공동생활가정	8년

3.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3회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확보하였다. 보조 자료로는 연구 참여자들이 공개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자료를 열람하였다. 면담 시간은 회당 90분 내외로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중단, 비밀보장 및 자료에 대한 익명처리, 면담내용에 대한 녹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자발적 참여의사와 최종적으로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주제가 문제가 될 만한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이라는 매우 사적이고 겉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은 주제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1차면담에서는 일상적 이야기에서부터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거주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애환 등을 자연스럽게 질문

1 연구 참여자 3의 경우, 2015년 춘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참여 사례를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였다.

하였다. 그리고 2~3차면담에서는 발달장애인 성행동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발달장애인의 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초점을 두어 질문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Giorgi(1997)가 제안한 4단계 분석절차에 따랐다[25]. 이를 위해 개별 사례 별로 의미단위 분석을 실시한 다음 사례 간 지속적 비교의 방법을 활용하여 하위 주제와 본질 주제들을 상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개별 사례들을 여러 번 숙독하면서 구술 자료에서 새로운 의미로 이행하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을 포착하여 이것에 개념을 부여하였다. 2단계에서 중복된 의미단위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3단계에서 이러한 의미단위들을 사례 간 지속적 비교의 방법을 통해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될 수 있을 때까지 모아가는 통합 작업 속에서, 하위 주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4단계에서 이렇게 구성된 하위 주제들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주제를 최종적 본질 주제 영역에 배치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노력

이 연구는 자료 분석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 and Lincoln(1989)가 제시한 신뢰성, 전이성, 의존성, 확증성을 적용하였다[26]. 신뢰성이란 장기간 참여와 관찰, 동료 검증 등이 해당되는데, 연구자들은 1년 2개월에 걸친 면담 자료 수집, 연구자간 상호 검토, 동료 연구자 검토 3가지 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이가능성은 분석한 자료에 대한 심층적 기술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연구자간 의미단위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 비교하는 지속적 숙의의 과정 속에서 중심 의미와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것을 본질 주제 영역으로 할당하였다. 의존성이란 신뢰성에 대한 재검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본질 주제 영역을 연구 결과로 기술 한 후 연구 참여자들의 재확인 작업(참여자 2, 5)을 거쳤다. 확증성이란 지속적인 연구자의 반성일지 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연구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할 때 그리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암묵적 전제와 편견을 성찰하는 지속적 메모하기와 일지 작성을 통해 이것을 연구자간 서로 점검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와 더불어 윤리적으로 측면에서 자발적 동의와 참여, 원할 경우 중도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녹취 원칙,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에 따른 교통비 지급, 철저한 자료관리 및 보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주제 목록 구성

본 연구는 Giorgi가 제시한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 총 144개 의미단위를 구성하였고, 이 중에서 중복되거나 하는 의미단위를 제거하고 통합하여, 총 40개의 중심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 의미들이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하위 주제 8개를 구성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8개 하위 주제를 ‘성문제 행동’과 ‘성인식’이란 본질 주제 영역에 배치하였다.

표 2. 본질 주제영역에 따른 하위주제 목록

본질 주제	하위 주제
성문제 행동	성적 욕구를 과도하게 표출하는 존재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부적절한 성행동
성인식	적절한 해결방안의 부재
	스스로의 성적 욕구와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
	좌절된 성
	달레마의 문제
	성적 매력을 갖기에는 불리한 조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성
연애와 성관계는 yes, 임신과 결혼은 no	

2. 본질 주제 영역의 기술

이 연구의 본질 주제는 성문제 행동과 성인식 영역이다. 여기에서 성문제 행동이란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불편감을 주거나 혹은 이것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 뿐만 아니라, 사회적·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불법적 성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인식이란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 및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의미하면서, 이러한 생각과 태도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사회 내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

2.1 성문제 행동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함께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성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성적 욕구를 과도하게 표출하는 존재',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부적절한 성행동'이란 2가지 하위 주제로 드러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으로는 남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과도한 자위행위', '여성 교사 속옷에 대한 부담스러운 관심', '야동 즐겨보기'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몰래 시설로 남성을 끌어들이어 성관계 맺기', '관심 있는 남성에게 손전화로 성적 관심 드러내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이러한 성적 욕구의 표출이나 성행동의 정도를 적절함보다는 과도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 당황스러움, 부담감의 심리적 기제를 드러내고 있다.

〈성적 욕구를 과도하게 표출하는 존재〉

'선생님 형이가 새벽 5시쯤에 이복속에서 팬티 내리고 끄끄끄 끄끄 소리 내고 고추 만져서 베게를 던졌어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 선생님아 화장실 가서 하라고 그랬지. 깨끗하게 하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애가 유독 심해요. 거의 매일하는 것 같은데...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이 안 되나 싶기도 하고...그런 걸 보면 많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워요 (참여자 1)

옛날에 그 전전 담당 교사일 때에는 이 친구가 아마 전화로 흠으로 다른 남자애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려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던 거야.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답답하지 (참여자 3)

또한, 참여자들은 함께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채, 타인에게 굴욕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범죄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일반적으로 성적 스킨십을 시도하는 성추행, 성기노출과 같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도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적절한 성행동을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성문제 행동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이들은 동료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입소자에게 성적 피해를 입어 퇴사한 경험을 목격하면서, 자신들도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발달장애

인이 돈을 지불하고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성매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부적절한 성행동〉

동네 여자장애인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몸을 보고 만지고..스텝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징계를 먹고 대기 중에 있었어요 (참여자 2)

그 직원 선생님이 젊은 20-30대였는데 선생님을 와락 껴안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나니까 이 선생님이 함께 생활하기가 무서운 거죠. 결국 그만두었어요. 애들이 던지도 있고, 생각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몸은 똑같잖아요. 또 이미 경험해 본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무서울 때도 있죠 (참여자 5)

2.2 성인식

발달장애인에게 갖는 성인식은 이들의 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정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의 성인식 속에는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적절한 해결방안의 부재'로 보거나, '자신의 성욕구와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성적 매력을 갖기엔 불리한 조건', 사회문화적 압력과 생활환경으로 인한 '좌절된 성', '달레마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관심이나 욕구, 이성교제 등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성'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연애와 성관계는 Ok, 임신과 결혼은 No'의 태도를 보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의 부재'의 경우,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과도한 성욕구의 분출, 성범죄가 될 만한 위험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인간의 근원적 본능인 성욕을 통제한다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이것을 성교육과 상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에 봉착하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을 구술하고 있었다.

〈적절한 해결방안의 부재〉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애가 있는데... 남한테는 여자친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카톡에 '야! 누구야. 키스하자, 뭐하자.

포용하자' 그런 단어들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개 핸드폰을 보고, 너 이러한 카톡 보내면 안된다. 그래서 핸드폰을 일주일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뭐해요. 제재를 해도 그때 뿐 인거예요. 또 도들이 표인거예요(참여자 1).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물어봤었죠.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똑같더라구요. 성기에 어떤 반응이 오고. 체크해 보려고 물어봤었죠. 전자에 문제를 일으킨 그 친구한테... '아! 이거 쉽지 않은 거구나' 하고 그때 많이 느꼈었죠. ... (중략)... 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고 그게 한계인거죠(참여자 2).

성교육만으로 안돼요. 아무리 저희가 성교육을 해서 피임하는 것도 가르치고 다 해요. 근데 상황이 닥치면 그 친구는 바로 판단 능력이 낮고,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다가가기 때문에 저희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너무 낮아요. (참여자 4)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부적절한 성문제 행동을 일으킨 발달장애인에게 명확한 주의를 주거나, 상담치료 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에 따른 개입을 하지만, 그것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저변에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의 성적 욕구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존재라는 시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성 욕구와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

책임도 질 수 없는데 허용을 어떻게 하나. 거기서 항상 저희들이... '그래 니네 욕구가 이러니까 해라' 해줘도 되돌아오는 건 수습해야 할일이 더 많은 거예요. (피해)대부분 시설에 있지 않고 퇴소하죠. 자유롭게 살다가 쉽터에 있죠. 그거 있죠. 성폭행여성 그런 쉽터. 거기에 가 있죠. 즐길 순 있으나 책임이 없고. 그런 안타까움, 한계가 있죠 (참여자 4)

법원 개념도 모르고, 판사 개념도 모르죠. 상담치료 처분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상담가면서 누차 다른 친구가 했으면 뉴스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크게 문제되는데, 너는 그나마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만큼 큰 문제라고 인식시키려고 애가 크게 인식을 못하죠 (참여자 6)

그리고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을 그들이 처한 환경적 조건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압력들로 인해 억압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는 비장애인처럼 이성교제나 성적 관계로 진입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움, 성적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생활환경, 성적 흥분이나 긴장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로 인해 공격적으로 변화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연민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좌절된 성〉

한 커플이 있었어요. 사귀는 커플들이 선생님이 나갔다 오니깐 여학생 집에 남학생이 놀러왔나 봐요. 선생님은 다 알죠. 다 같은 공동체 애들이니깐... 남자가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들킨 거예요. 이제 손잡고 다니고 그랬지만 그건 가벼운 스킨십 정도이지 완전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관계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장소에서 해라고 제공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참여자 1)

본인이 성 욕구 해소를 못하다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거짓말이며 폭력적인 부분들이 없었던 친구가 그렇게 자꾸 나타나다보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자꾸 지적하게 되고.. (참여자 4)

한편 발달장애인의 성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모순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성범죄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과 책임이 상호 부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성범죄와 고착행동 사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의 모호함,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인 여성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당황스러움 등을 자신들의 딜레마 경험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심리사회적 특성들로 인해 사회적 규범, 법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현실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딜레마의 문제〉

우리 자폐성 친구 중에는 성추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스타

킹이나 가족의 감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아가씨를, 지하철을 탔었는데 그 스타킹을 만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추행 그런 이슈가 예민하게..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여학생이 신고를. 그래가지고 '날 성추행 했다' 그런데 장애 인권단체에서는 이 친구는... 이 자폐성 친구는 가족이라던가. 스타킹이라던가.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그런 촉감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지 성이랑 결부가 돼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게 소송중이에요. 결론은 없고...(참여자 2)

애네들이 그런 성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여자들 함부로 다가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만지면 안된다. 아무데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 문제는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절이 안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함께 겪어야 하는 우리들도 힘든 문제죠 (참여자 6)

성폭행을 당했는데, 선생님 앞에서는 '무서워서 싫어요'라고 말했는데, 심리검사를 한 거예요. 심리검사를 했는데 즐겼다, 좋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일반적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열을 냈는데 애는 즐겼다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참여자 4)

이와 더불어 인간이 타인에게 성적 매력을 갖는다는 것은 신체적 외모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매력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타인이 자신을 성적 존재로써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어필시키기에는 육체적, 심리사회적, 인지적으로 미흡한 존재로써 인식하는 모습이다.

〈성적 매력을 갖기엔 불리한 존재〉

먹는 것도 조절이 안 되고, 자기 관리도 잘 안되고. 아무래도 몸이 안 따라 주잖아요. 생각도 부족하고, 남자를 만나야 연애를 할 텐데...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죠 (참여자 3)

사회생활이 서투니까 이성을 다루는 것도 많이 서툴지 않은가 싶어요. 부모님등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도움을 줘야겠죠 (참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이성에 대한 관심, 낭만적 연애의 극적 의식으로서 성적 스킨십과 성관계 진입에 대해서는 발달 장애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

지만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이성 교제 상에서 성적 관계로의 진입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성으로 인식하였다.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성〉

요즘 추세가 쾌락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장애인들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자들 치마는 짧아지죠. 속옷을 무엇을 입었을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우 냄새가 남자들이랑 많이 다르네. 가까이 가서 말아보고 싶고 싶네.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런 게 제어가 안 되는 친구들인데. 조금 한 템포 늦을 뿐이지. 가치관은 같은 것 같아요 (참여자 2)

피임도 하고 하냐고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콘돔 사용한다고 해요. 즐기는 거 같아요. 어제 200일됐네요. 연애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백화점가서 외투도 사주고 저녁도 먹고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참여자 3)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은 성이 개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성 풍조에 따라 정상적 성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녀 사이의 이성교제와 이에 기반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임신, 자녀출산,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그 이유로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임신과 결혼은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책임을 강요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임신과 결혼을 반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연애와 성관계는 Ok, 임신과 결혼은 No〉

저희 기관에서도 성에 대해서 개방이지만 결혼까지는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한다면 해주지만 그 외에는 그 친구들 살아갈 때에는...문제란 말이에요. 또 애 낳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 한 인생의 생애주기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지원이 없으면 힘들죠 (참여자 3)

본인 한 사람도 신변관리하기가 힘든데 아이까지 낳아서 본인들이 양육하는 건 힘든 것 같고.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두 사람 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말 본인들의 신변관리도 안 되니..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2세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참여자 6)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과 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드러내는 과도한 성적 욕구의 표출과 일탈적 성범죄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표출되는 발달장애인의 과도한 성욕구나 행동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거나, 성범죄로 연루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에 대해 성교육이나 상담 방법만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그들이 학습하고 내면화한 성규범의 논리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성규범을 강화하고 재생산해내는 또 하나의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근원적 욕구는 그것의 한계와 경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본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성적 본능에 오직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문화 혹은 법률 체계가 만들어내는 성규범일 것이다. 종사자들 역시 지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성욕구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 '성적 매력을 갖기엔 불리한 존재', '연애나 성관계는 가능하지만, 임신과 결혼은 어려운 존재'라는 등의 부정적 인식을 통해,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적 시선을 생산해 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학습하고 내면화한 고정관념의 틀 속에 발달장애인의 성을 국한시켜 놓음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성을 사회 속에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성으로 제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관 혼란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발달장애인 성에 대

한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학습하고 내면화한 지적장애인 성에 대한 규범적 가치관이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간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근거는 이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을 '좌절된 성'으로 바라보는 연민의 시선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어려움과 이들의 성문제를 돕는 실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딜레마 경험'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성적 행동과 관련하여 신념적 갈등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를 [11][28]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성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발달장애인 성적 가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 [1][11][29]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경험하게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성을 통해, 그동안 그들이 학습하고 내면화한 성 규범에 대한 가치관 균열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첫째, 발달장애인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성문제 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발달장애인 성문제 행동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기관의 설립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예컨대 이러한 기관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해주는 관련 기관 협의체나 지원센터 내에 함께 병설하여 운영하거나 혹은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서비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한 바 있다[9]. 그런데 이러한 매뉴얼 개발과 보급은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이 존재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 및 이것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을 좀 더 총체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발달장애인 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는 주체[11][30] 혹은 그들의 불안정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적절하게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할 성[12][22]이란 상호 대립적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시각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한 역량을 가진 존재로서 가정했을 때 그것의 실현이 가능하며, 반대로 후자의 시각은 불안정한 존재로써 이들의 성은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영역으로 제한되기 쉽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총체적 시각은 이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성이라는 것을 함께 보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총체적 시각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상호 대립적 시각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총체적 시각을 견지했을 때, 이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을 배타적 이해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이들의 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이해와 지적장애인 성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종사자의 역량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가 제언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대상 발달장애인 성이해에 대한 전문적 역량강화 교육은 '다양성'과 '관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양성'이란 발달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성을 향유할 권리와 그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 이들의 취약

점으로 인해 이들의 성을 보호와 관리의 차원에서 함께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계'란 발달장애인들의 성적 욕구와 행동이 그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교류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성을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들이 만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성적 행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자한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들이 갖는 발달장애인 성에 관한 인식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으로,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표할 수 없고 질적연구의 특성상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외 장애인 관련 복지관련 종사자들을 분야별 직업별로 다양하게 연구하여 성에 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F. Wilkenfeld and S. Ballan, "Educators' Attitudes and Beliefs Towards the Sexuality of Individual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xuality and Disability*, Vol.29, No.4, pp.351-361, 2011.
- [2] R. Young, N. Gorge, and M. Mccarthy, "Staff Attitudes towards Sexuality in relation to Gender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 Qualitative Study*, Vol.37, No.4, pp.343-347, 2012.
- [3] 김용득, 고명균, 송남영, 장정은, 김희정,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서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4] 송영욱, *장애로부터의 자유: 智山 송영욱 선생 저술집*, 서울: 해든디앤피, 2001.
- [5] 박은영, "청년기 지적장애인의 고용 유지 결정 요인: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519-529, 2015.
- [6] 박선원,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체계와 사회활동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594-610, 2017.
- [7] 최복천, 김유리,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지원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부모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제16권, 제3호, pp.69-92, 2014.
- [8] 공마리아, 이성록, “발달장애 성인 생활시설의 성관련 서비스 실태 및 관리자의 태도-서울지역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6권, 제4호, pp.77-10, 2017.
- [9] 김영숙, 김영걸, “발달장애인의 성인식과 성태도에 따른 성교육지원 연구,” 지적장애연구, 제17권, pp.161-184, 2015.
- [10] 정유진, 전혜인, “발달장애학생의 성문제 행동에 대한 특수 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 특수교육, 제14권, 제1호, pp.351-361, 2017.
- [11] 임해영, 김학주, “성인기 발달장애인 성행동에 관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29호, pp.149-173, 2015.
- [12] D. Giulio, "Sexuality and People Living with Physical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Review of key issue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Vol.12, No.1, pp.53-68, 2003.
- [13] A. Murphy and R. Elias, "Sexu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Vol.118, No.1, pp.398-403, 2006.
- [14] 여성가족부,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7.
- [15] 박근필, 이영철,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성교육 실태분석: (2005-2014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제17권, 제4호, pp.159-176, 2015.
- [16] 정선경, 사이버커뮤니티를 활용한 가정연계 성교육 프로그램이 정신지체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7] 김유리, “지적장애 학생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제8권, 제2호, pp.219-237, 2009.
- [18] 김주연, 자기결정 구성요소를 적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지적장애 성인의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9] 신부자, 재가장애인 부모와 시설종사자의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인식비교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0] A. Lumley and R. Scotti, "Supporting the sexuality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Vol.3, No.2, pp.109-119, 2001.
- [21] L. Servais, "Sexual Health Care in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Vol.12, No.1, pp.48-56, 2006.
- [22] 권애리, 박원희, “경도 지적장애 여고생의 성 비행 경험탐색,” 통합교육연구, 제6권, 제2호, pp.197-223, 2011.
- [23]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현상학과 심리학연구*, 현문사, 2004.
- [24]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 연구*, 한길사, 2014.
- [25] A. Giorgi,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28, No.2, pp.235-260, 1997.
- [26] G. Guba and S. Lincoln,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Publication, 1989.
- [27] 임해영,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 경험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3호, pp.91-121, 2016.
- [28] S. Beart, G. Hardy, and L. Buchan, "How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View Their Social Ident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18, No.1, pp.47-56, 2005.
- [29] M. Ballan, "Parents as Sexuality Educators for thei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IECUS Report, Vol.29, No.3, pp.14-19, 2002.

- [30] R. Brown and T. Pirtle, "Beliefs of Professional and Family Caregivers about the Sexuality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amining Beliefs using a Q-methodology Approach," Journal of Sex Education, Vol.8, No.1, pp.59-75, 2008.

저 자 소 개

임 해 영(Hae-Young Lim)

정회원



- 201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예명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여성, 질적연구방법

홍 영 준(Young-Joon Hong)

정회원



- 2009년 8월 Univ. of Kansas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지역내 돌봄

진 주 램(Joo-Ram Jun)

정회원



- 201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가족학 박사
- 2017년 7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학습·상담 전공 연구교수
- 2014년 1월 ~ 현재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관심분야〉 : 가족과 사회, 상담치료, 남북한 문화 및 통합